



PwC's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Reimagining the outcomes that matter



CEO 경영과제의 재설정

January 2022



Contents

Reimagining the outcomes that matter: CEO 경영과제의 재설정	01
단기 성과에 대한 자신감 회복	03
매출 감소의 잠재적 위협 요인	08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성과	12
넷제로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시각	15
CEO들의 우선 과제	21

Reimagining the outcomes that matter:

CEO 경영과제의 재설정

코로나 대유행 이후 2년 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경제는 2020년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IMF는 2022년 전 세계 GDP가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성장 전망률인 5.9%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wC에서 실시한 제25차 연례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 참여한 89개국 4,446명의 CEO들 역시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과 긴장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악의 기후 변화 사태를 막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COP26 회의 기간 중에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PwC 전문가들은 그 자리에 모인 리더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매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는 그룹을 설득해 함께 행동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라는 점도 알게됐습니다.



설문조사가 종료되고 2주 후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뉴스가 전세계에 울려 퍼지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빠르게 퍼지는 코로나 대유행에 비해 느리게 복구되는 정상화의 길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문문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22%만이 넷제로 이행을 선언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CEO들은 거시경제 변동성, 기후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처럼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사이버 리스크 및 보안 리스크 등 단기적 영향력이 큰 부분을 회사 매출 성장에 주요한 위험 요소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 결과에서 우리는 현실을 재조망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뢰의 힘’입니다. 실제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넷제로 이행 선언 비율이 높았으며, 직원 만족도, 인력의 다양성 등 여러 비재무적 성과가 회사 성장 전략에 포함되는 비율 역시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 25년 간 PwC는 전세계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CEO들이 주요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1998년 닷컴 버블 당시, CEO들은 인터넷 사용에서부터 전자상거래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 금융 스캔들 이후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리스크 관리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2008년과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있던 지난해에는 CEO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가 전략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날 CEO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명하면서도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한 이후에도 기후 변화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제25차 연례 글로벌 CEO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 인식과 함께 세계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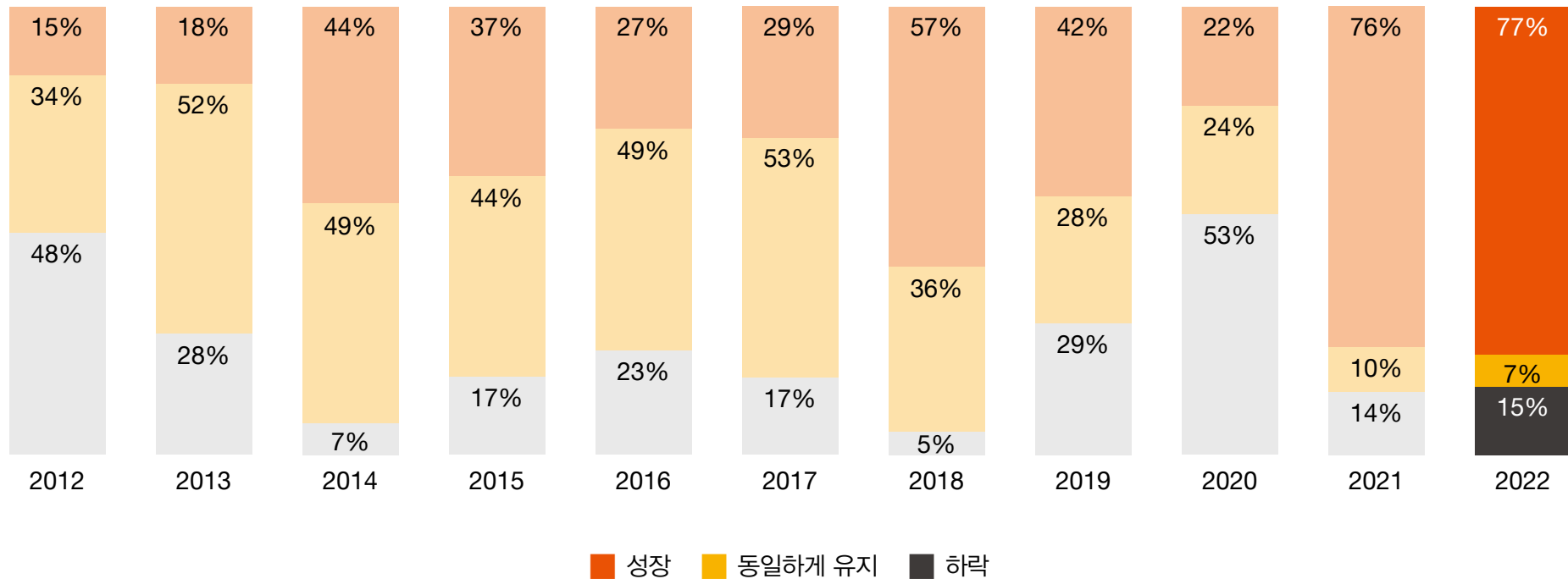
단기 성과에 대한 자신감 회복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퇴사(The Great Resignation) 현상이 CEO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CEO들은 단기적인 성과면에서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답한 CEO, 전체 응답자의 77%.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의 CEO들이 향후 1년 안에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실시한 동일 설문 (2021년 1월~2월 동안 실시) 결과보다 1% 올라간 수치로 CEO들에게 성장 잠재력에 대한 견해를 묻기 시작했던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예: GDP)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otes:

From 2012 to 2014, respondents were asked, 'Do you believe the global economy will improve, stay the same or decline over the next 12 months?'

Base: All respondents: (4446)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향후 12개월 동안 성장에 사모펀드 CEO들이 가장 큰 자신감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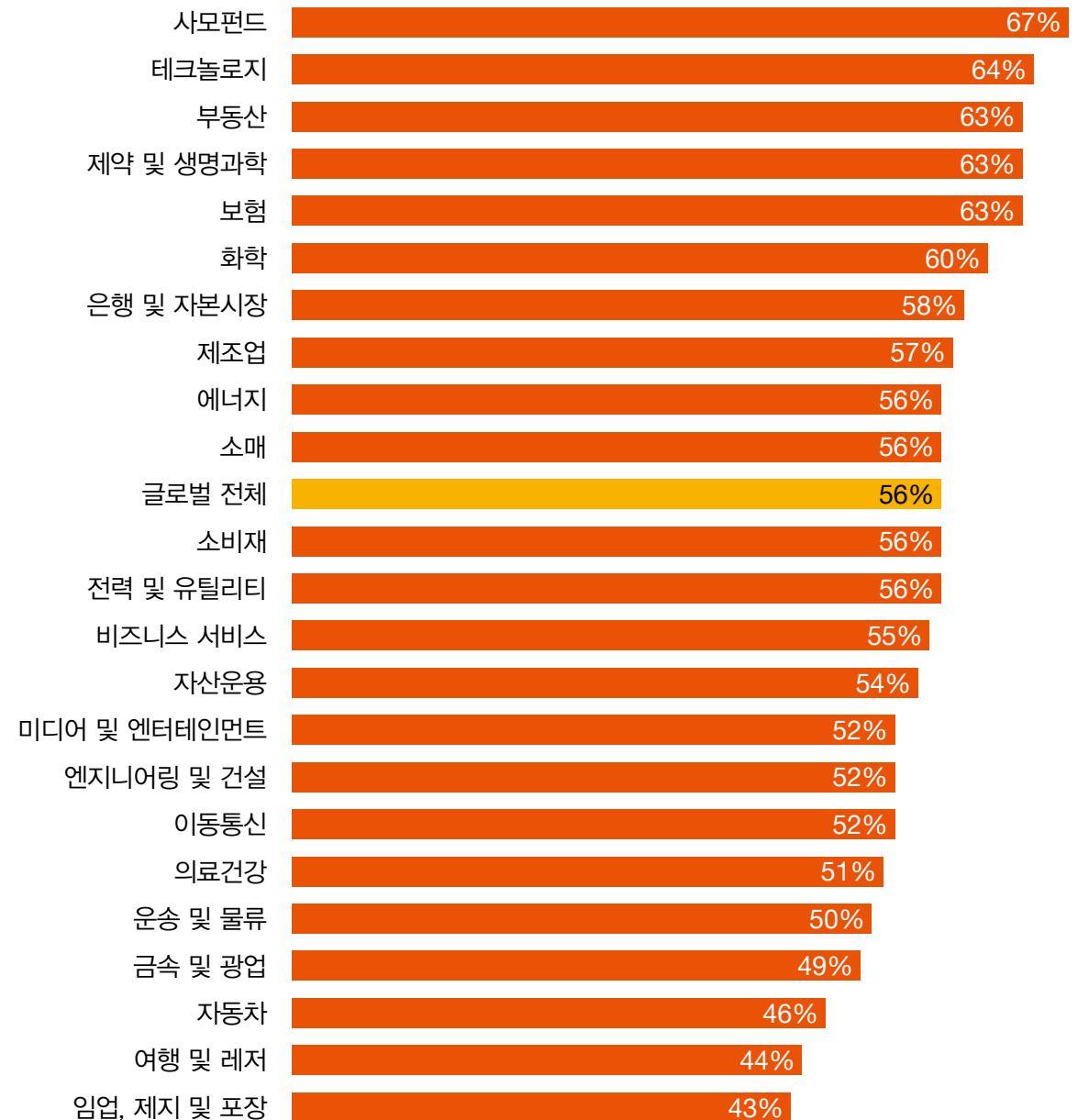
또한 절반 이상의 CEO들이 향후 1년간 기업의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데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모투자 기관들의 CEO와 테크놀로지 기업의 CEO가 각각 67%, 64%에 달하는 높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두 분야 모두 충분한 자본의 유입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반면 자동차(46%), 여행 및 레저산업(44%) 부문은 반도체 공급 부족과 여행 규제로 인해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Notes:

Base: All respondents: (4446)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 조직/회사의 매출 성장 전망에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매우 확신함, 극도로 확신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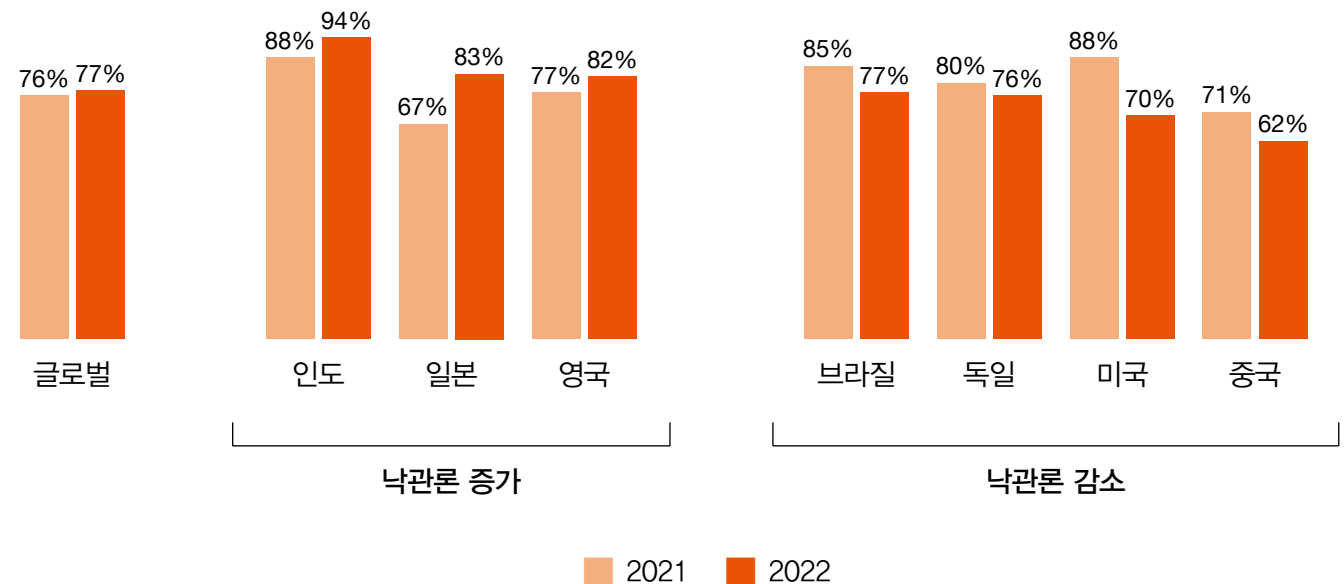


글로벌 성장에 대한 CEO의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낙관론 감소

CEO들의 성장 전망은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낙관론이 가장 우세한 인도는 94%가 글로벌 경제 성장을 낙관했으며, 일본의 CEO들도 견고한 상승 추세(83%, 전년도 67% 대비 16% 포인트 상승)를 이어갔습니다. 영국(82%, 5% 상승)과 이탈리아(89%), 프랑스(85%, 전년 대비 25%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폭)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경기 회복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낮아진 지역도 있는데, 이는 각국이 처해있는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설문조사를 앞두고 타 지역에 비해 경제가 반등하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 공급망 붕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있는데, 중국에서는 인구구성 변화와 구조적 실업이, 미국에서는 대규모 퇴사와 조기 은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예: GDP)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Source: PwC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성장의 동력

PwC의 최근 보고서 ‘Living in a world of unicorns’에 따르면, 지난 5년 반 동안 전 세계 유니콘 지형에서 총 869개 기업이 10억 달러 가치 평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향후 주목해야 할 다섯 개 분야로 소비자 금융 플랫폼, 전기차 에코시스템, 메타버스, 자동차와 전자상거래 융복합, 버추얼 헬스케어를 들었습니다.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매출 감소의 잠재적 위협 요인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CEO들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리스크, 보건 리스크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손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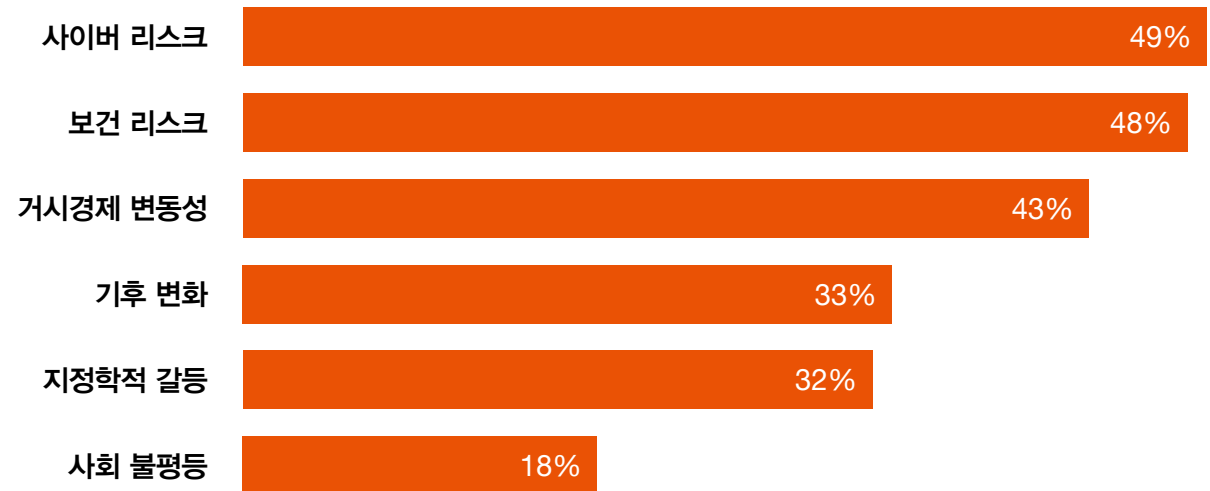
지난해와 유사하게 사이버 리스크(49%)와 보건 리스크(48%)가 기업 운영의 주요 위협 요소로 손꼽혔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GDP의 변동성, 노동시장 이슈의 잠재적 영향 등 거시경제 변동성(4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CEO들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역량이었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염려하는 CEO의 69%, 보건 리스크를 염려하는 CEO의 62%가 핵심 인재의 확보와 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tes:

Base: All respondents: (4446)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의 회사/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글로벌 위협 요인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계십니까?
(매우 우려함, 극도로 우려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



금융분야의 CEO, 사이버 리스크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 서비스 분야의 CEO들은 사이버 리스크(59%)를 주요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산업을 불문하고 다수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40%)과 소비재 산업(39%) CEO들이 인지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부문의 CEO의 경우 높은 비율(75%)로 보건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산업의 CEO 가운데 49%는 기후 변화를 주요 위협 요인으로 간주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산업군의 응답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Notes:

Base: All respondents: (4446)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의 회사/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글로벌 위협 요인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계십니까?
(매우 우려함, 극도로 우려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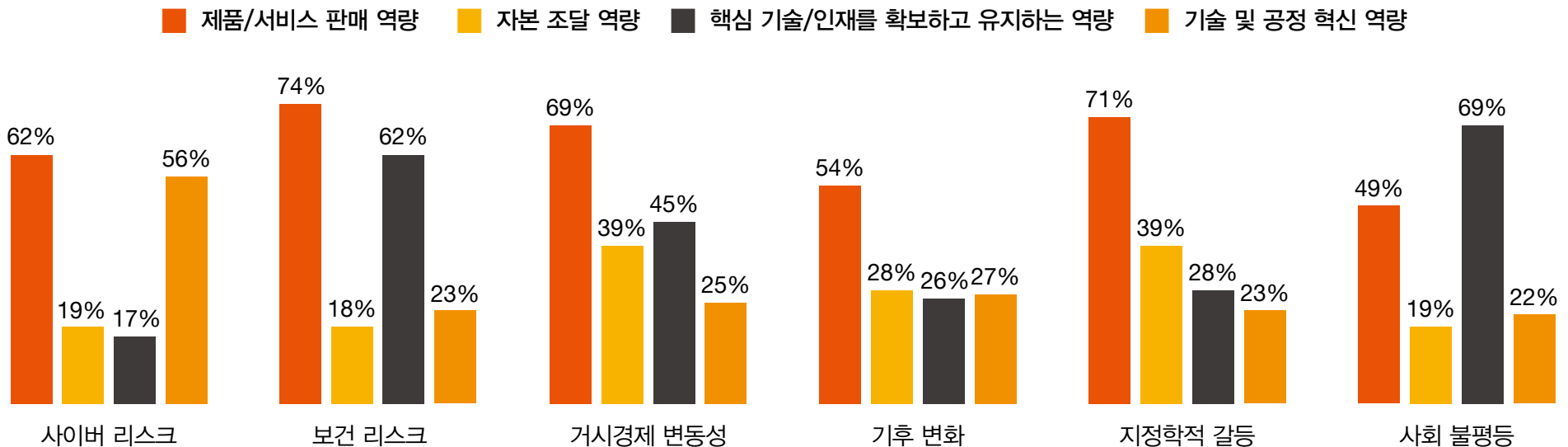
	사이버 리스크	보건 리스크	거시경제 변동성	기후 변화	지정학적 갈등	사회 불평등
자산 운용	54%	40%	45%	32%	31%	19%
사모펀드	54%	42%	35%	25%	39%	16%
은행 및 자본시장	67%	49%	46%	37%	34%	24%
보험	64%	54%	40%	42%	32%	24%
부동산	42%	49%	54%	34%	25%	22%
이동통신	58%	42%	50%	26%	36%	12%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45%	53%	42%	24%	23%	14%
기술	48%	38%	37%	23%	29%	16%
소매	51%	48%	44%	37%	30%	21%
소비재	39%	48%	51%	39%	34%	23%
운송 및 물류	46%	50%	56%	33%	35%	25%
임업, 제지 및 포장	50%	50%	53%	47%	38%	18%
요식 · 숙박업 및 레저	41%	75%	43%	33%	37%	19%
자동차	42%	46%	50%	37%	39%	19%
제조업	40%	44%	46%	33%	32%	13%
엔지니어링 및 건설	41%	37%	45%	33%	28%	16%
비즈니스 서비스	50%	48%	48%	30%	31%	23%
의료건강	58%	67%	42%	30%	22%	29%
제약 및 생명과학	45%	41%	48%	22%	30%	23%
에너지	47%	44%	41%	59%	30%	21%
금속 및 광업	46%	51%	47%	46%	42%	20%
전력 및 유틸리티	52%	39%	39%	52%	27%	17%
화학	38%	40%	45%	44%	35%	15%
글로벌 전체	49%	48%	43%	33%	32%	18%

위협 요인에 상관없이 매출에 대한 단기적 영향력 우려

이러한 선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향후 12개월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성과를 이루는데, 위험 요소들이 어떤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CEO들은 매출 감소의 잠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CEO들이 기후 변화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장기적 과제는 단기 성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아래의 요인이 귀하의 회사/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매우 우려함, 극도로 우려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

우리 회사/조직의 '이러한'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



Notes:

Base: All those who answered 'very concerned' or 'extremely concerned' in Q3: (Cyber risks=2189, Health risks=2144, Macroeconomic volatility=1919, Climate change=1488, Geopolitical conflict=1426, Social inequality=794)

Note: Not showing responses for 'It could inhibit our ability to develop products/services'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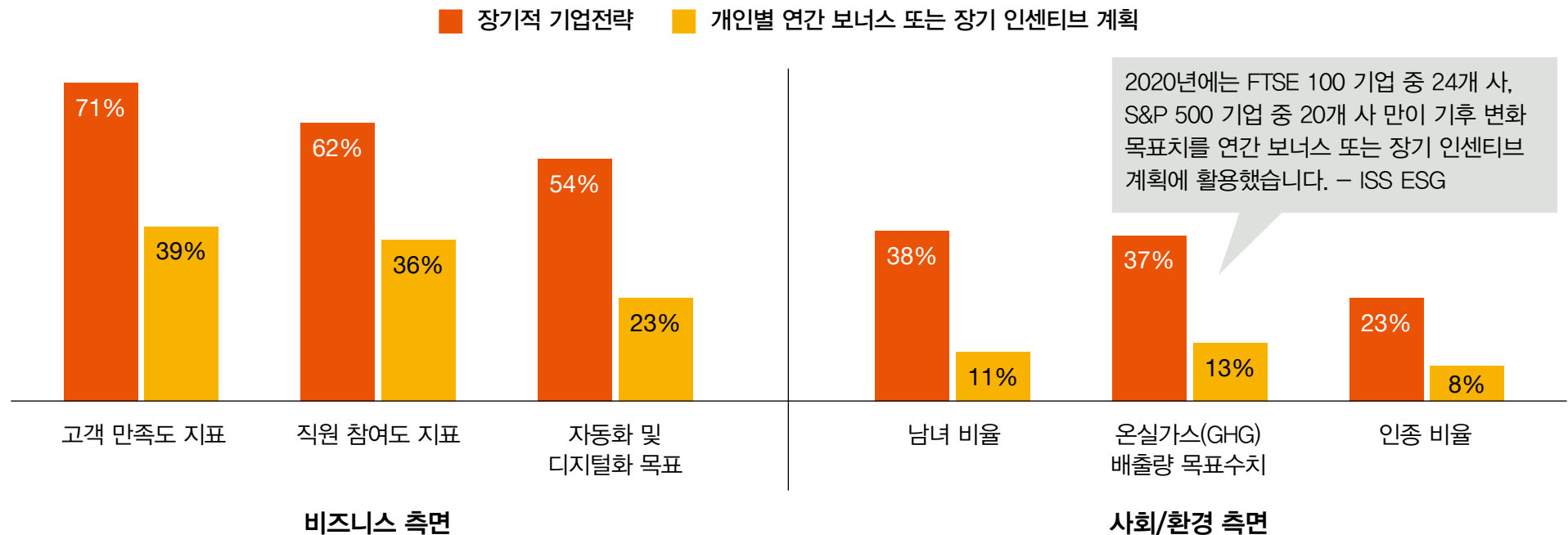
CEO들의 관심 사항은 기업 운영 전략에서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의 경영 전략은 여전히 비즈니스 성과 지표를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ESG에 대한 관심도 높으나, 전략 수립은 비즈니스에 의해 주도

대다수의 CEO는 고객 만족도, 직원 참여, 자동화 또는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된 목표를 장기 전략과 연계해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는 일상적인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 및 성별, 인종, 종족의 다양성을 포함한 인력 구성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장기 전략과 보상 측면에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CEO 가운데 8% 만이 장기 전략과 보상 계획에 이러한 지표를 포함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질문: 다음의 비재무 지표 성과가 귀하의 기업/조직의 장기적 기업전략 또는 개인별 연간 보너스 또는 장기 인센티브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Notes:

Base: All respondents: (4446)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신뢰의 힘

PwC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CEO들에게 고객 관여도와 관련해 충성도, 신뢰성 등 6가지 분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신뢰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신뢰도와 기업 성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고객 신뢰도가 높다고 인지되는 기업군의 CEO들은 71%가 향후 12개월 내 회사의 매출 성장에 확신을 보인 반면, 신뢰도가 낮은 기업군의 CEO들의 성장 확신은 47%에 불과했습니다. 고객 신뢰도는 넷제로 선언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뢰도가 높은 기업의 CEO는 고객 신뢰도가 낮은 기업(16%)보다 넷제로 선언을 한 비율(29%)이 높았습니다. 또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의 CEO들은 비재무적 성과를 보상과 결부시키는 비율이 높았는데, 고객 신뢰도가 높은 조직을 이끄는 CEO의 약 절반이 개인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 계획과 관련된 고객 만족도 지표(51%) 및 직원 참여 지표(46%)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볼 때, 앞으로 고객과 사회의 신뢰가 이윤의 창출과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공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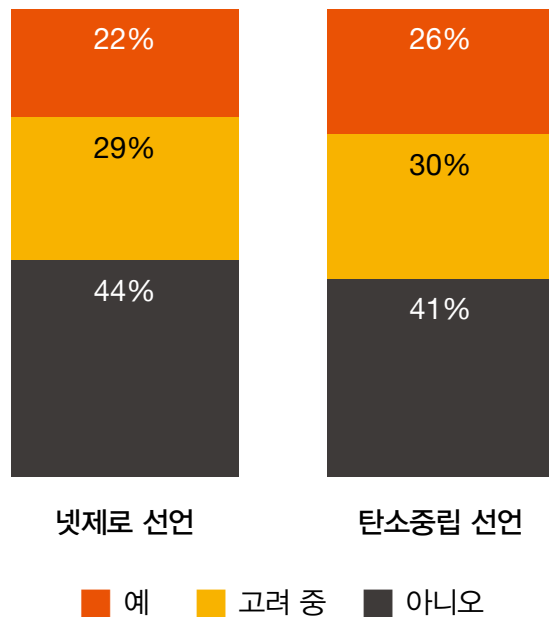
넷제로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시각

COP26은 넷제로 이행의 움직임을
글로벌 어젠다로 이끌어내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탈탄소 행보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넷제로 선언을
주요 아젠다로 생각하는 기업들은
운영 전략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제로 선언에 참여한 기업은
22%에 불과. 탄소 배출 감축하겠다는
CEO는 3분의 1 미만

설문 참가자 중 22%만이 넷제로 선언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 25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65%가 넷제로 선언을 한 반면,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인 기업 가운데 넷제로 선언을 한 기업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질문: 귀하의 회사/조직은 넷제로 또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까?



넷제로 선언 기업은:

- 매출액 기준 규모가 큰 대기업, 상장된 기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매출 25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운데 약 3분의 2가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비해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의 기업의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 서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미와 중동 기업의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 탄소 집약적인 부문(예: 에너지, 전력 및 유틸리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넷제로 선언을 한 기업의 61%가 과학기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Notes:

Base: All respondents: (4446)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광업 및 자동차 산업 CEO, 탄소 감축 이행에 대한 확신 낮아

산업 측면에서 넷제로 선언은 탄소집약적이고 규모가 큰 대기업과 관련성이 높았습니다. 넷제로 선언을 한 기업은 전력 및 유틸리티 부문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에너지 산업이 39%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 산업과 은행 및 자본 시장(24%)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2배 이상 넷제로 이행 선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광업 및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넷제로 이행이나 탄소 중립에 대한 자신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귀하의 회사/조직이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문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매우 영향 있음, 크게 영향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

	우리 회사/조직은 온실 가스(GHG)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 회사/조직은 온실 가스(GHG)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현재 갖추지 못하였다	우리 회사/조직의 업종 부문에서는 정립된 탈탄소화 접근방식이 없다	우리 회사/조직은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을 이행할 수 있다고 확인하지 못한다	우리 회사/조직은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을 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유가 없다	우리 회사/조직의 외부 이해관계자 ¹ 는 기후 변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조직의 내부 이해관계자 ² 는 기후 변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자산 운용	67%	47%	54%	19%	13%	13%	7%
은행 및 자본시장	65%	52%	51%	20%	15%	16%	13%
보험	71%	49%	45%	14%	15%	18%	18%
부동산	46%	61%	51%	34%	27%	20%	12%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67%	55%	60%	15%	22%	16%	12%
기술	74%	61%	50%	14%	19%	19%	16%
소매	52%	59%	52%	27%	22%	26%	19%
소비재	46%	49%	58%	27%	31%	22%	18%
운송 및 물류	43%	34%	31%	22%	22%	12%	10%
자동차	51%	49%	51%	39%	27%	24%	17%
제조업	43%	51%	53%	25%	24%	21%	13%
엔지니어링 및 건설	42%	50%	51%	30%	24%	20%	14%
비즈니스 서비스	72%	56%	54%	22%	23%	18%	15%
의료건강	67%	64%	67%	22%	25%	31%	22%
제약 및 생명과학	64%	81%	57%	19%	31%	29%	24%
에너지	40%	25%	30%	30%	35%	33%	23%
금속 및 광업	41%	25%	44%	44%	28%	13%	6%
글로벌 전체	57%	55%	52%	24%	22%	20%	16%

1 외부 이해관계자: 투자자, 고객, 공급업체
2 내부 이해관계자: 직원, 이사회위원, 대주주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탈탄소화를 선언하지 않은 기업, 낮은 배출량과 측정 역량 부족이 주요 사유

탄소 배출 감축 또는 넷제로를 선언하지 않은 CEO 중 57%가 비즈니스 과정에서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많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부문(74%), 비즈니스 서비스부문(72%), 보험(71%)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CEO들의 이 같은 견해는 직접적인 탄소 발생량을 의미하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치중하고,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의 기여도를 포함하여 기업의 가치 사슬 전체에서 생성되는 Scope 3 간접 배출량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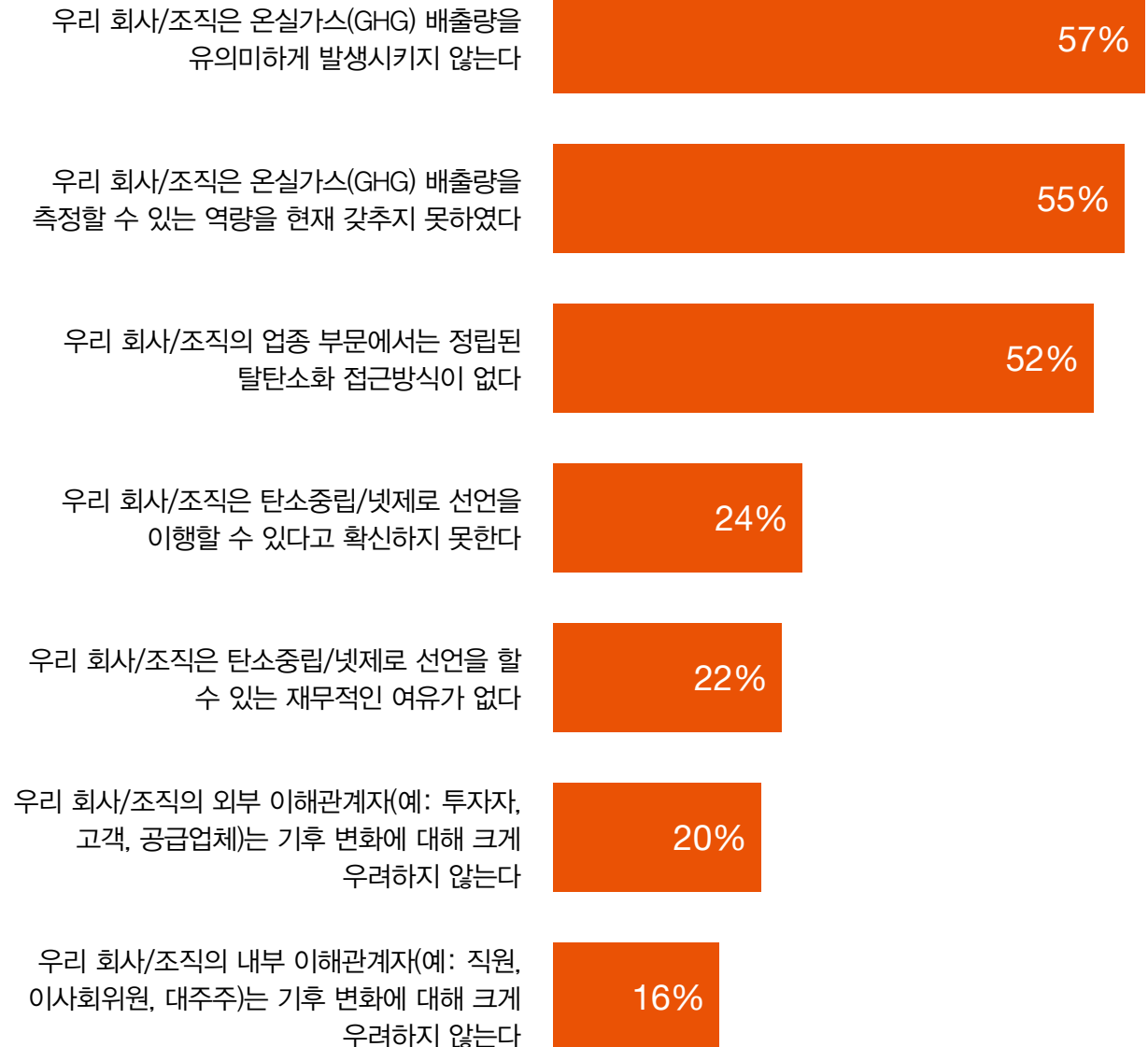
Notes:

Base: Those whose company has not made a carbon-neutral or net-zero commitment (1591)

GHG = Greenhouse gas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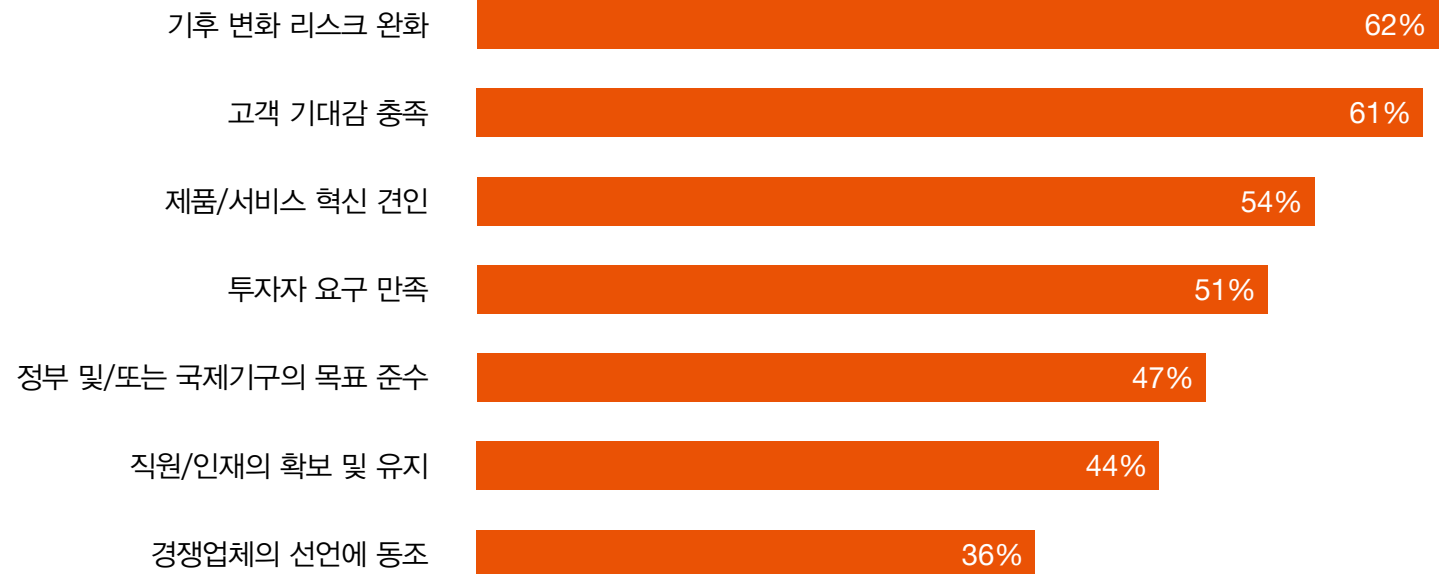
질문: 귀하의 회사/조직이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문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매우 영향 있음, 크게 영향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



넷제로 선언의 주요 원인, 기후 변화 리스크 완화

CEO들은 넷제로 선언의 가장 큰 동기를 기후 변화 리스크 완화(63%)라고 답했으며, 고객 기대 충족(61%)이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이 기업의 브랜드 평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귀하의 회사/조직의 탄소 중립
및/또는 넷제로 선언에 다음의 요인들은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매우 영향 있음, 극단적으로 영향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



Notes:

Base: Those whose company has made or is working towards making a net-zero commitment (2267)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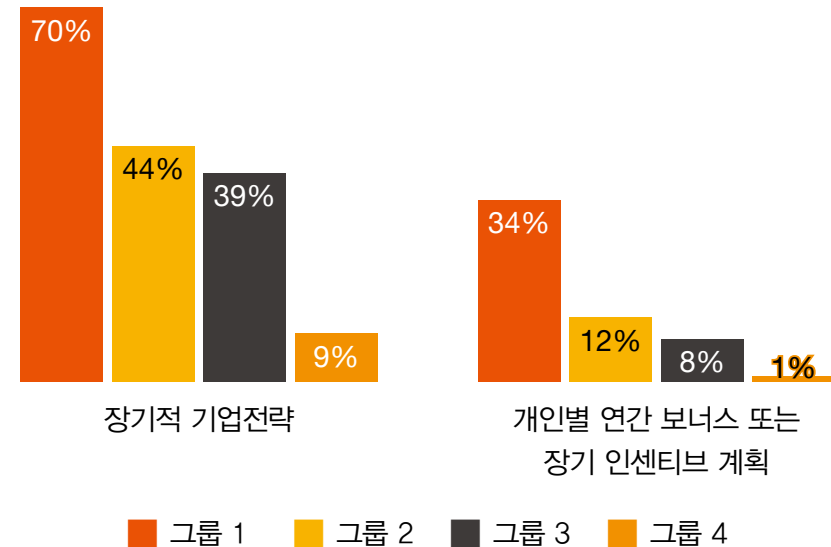
탄소 감축 선언은 일부 기업의 전략 목표에 포함

설문 결과에 따르면, 탄소배출 감축 선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일수록, 감축 목표가 기업 운영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CEO의 성과 평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기반 목표에 따른 넷제로 선언을 한 기업의 70%는 기업 운영 전략에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 탄소 감축 계획을 과학기반 목표와 연계하지 않은 기업은 44%, 탄소 감축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은 8%만이 탄소 감축을 전략적으로 이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질문: 비재무 지표인 온실가스(GHG) 배출량 목표가 귀하의 기업/조직의 장기적 기업전략 또는 개인별 연간 보너스 또는 장기 인센티브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탄소 감축 선언과 관련하여 4개의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그룹	탄소감축선언 또는 진행 여부	과학기반 목표와 연계
1	넷제로	예
2	넷제로	아니오
3	탄소중립	해당없음
4	해당없음	해당없음



Notes:

Base: Those who selected greenhouse gas emission as a target(s) in their company's long-term corporate strategy and/or personal annual bonus or long-term incentive plan : Group 1 companies = science-aligned net-zero commitment; Group 2 companies = non-science-aligned net-zero commitment; Group 3 companies = carbon-neutral commitment; Group 4 companies = no net-zero/carbon-neutral commitment

Source: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CEO들의 우선 과제

Resetting the conversation

이사회는 CEO와 함께, 그리고 CEO는 동료 경영진과 함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시간, 관심, 기업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신중한 전략적 어젠다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thinking incentives

기업의 이익, 넷제로 이행과 비재무적 성과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하여금 현재 구성원들이 추진하기를 원하는 우선순위,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방법 사이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Recalibrating skills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사이버 보안, 신뢰 구축, 탈탄소화의 측정과 관리 사이의 우선순위를 만들어가는 CEO들의 역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하게 됩니다. 리더들이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순위를 높이고 폭넓은 시야로 경쟁의 범위를 넓혀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토론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반대를 수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Reimagining collaboration

사회의 가장 시급한 도전에 맞서는 것은 기업 리더, 정부, 정책입안자, 투자자, NGO 등 간에 유례없는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단일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지만, 각자 가진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 더 큰 시너지를 낸다면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Reappraising succession

오늘날 당면한 크고 작은 과제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얻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선입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폭넓은 인재풀을 바탕으로 차기 리더십을 양성하는 계획은 한 기업의 CEO와 이사회가 조직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마치며

“ 팬데믹의 지속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라는 먹구름이 지난 한 해 동안 드리우고 있지만, CEO들의 성장에 대한 확신을 보며 글로벌 경제의 힘과 회복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경영할 수 있는 CEO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며, 우리는 점점 더 뉴노멀에 익숙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성장에 대한 확신에서 차이가 있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CEO들이 전반적으로 2022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CEO들이 향후 12개월을 내다볼 때 거시경제적 변동성, 사이버 및 보건 리스크 등 단기 성과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기후변화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요인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의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과제에도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윤 훈 수

삼일PwC CEO



PwC network contacts

윤 훈 수 CEO & Territory Senior Partner
hoonsoo.yoon@pwc.com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오 기 원 Leader
kee-won.oh@pwc.com

강 찬 영 Deputy Leader
steven.c.kang@pwc.com

Tax

주 정 일 Leader
jung-il.joo@pwc.com

이 중 현 Deputy Leader
alex.lee@pwc.com

Deals

유 상 수 Leader
sang-soo.yoo@pwc.com

박 대 준 Deputy Leader
dae-joon.park@pwc.com

PwC Consulting

이 기 학 Leader
key-hak.lee@pwc.com

문 홍 기 Deputy Leader
hong-ki.moon@pwc.com

Client & Market

배 화 주 Leader
hwa-joo.bae@pwc.com

25th Annual Global CEO Survey

pwc.com/kr/ceosurvey

S/N: 2201W-RP-004

© 2022 PwC Kore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